“‘교통사고 1위 도시’ 오명 벗자”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김양균 대표

“시민의식 계도·교통인프라 구축 앞장”

“광주시민의 역량이라면 능히 ‘교통질서 1등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김양균(74) 변호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운동을 통해 광주가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벗고 교통문화 선진지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시민들의 질서 의식 미흡으로 인한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은 ‘의향’과 ‘예향’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모범적인 교통질서 정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범시민운동본부 설립 배경은.

▲‘교통사고 1위 도시’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광주는 최근 4년째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해 광주의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는 156.4건으로, 전국 평균(105.4건)의 1.5배에 달한다.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가 아닌가.

-대표를 맡은 소감은.

▲고향인 광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영광스럽다. 수차례 대표직을 고사했으나 박영렬 광주지검장 등의 간곡한 요청으로 수락하게 됐다. 개인적으론 “고향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도 있었다. 70년대 광주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만들어 놓은 ‘범죄예방제도’가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교통문화 개선에 혼신의 힘을 쏟을 각오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어떤 조직인가.

▲광주의 민·관·정·재계를 총망라한 조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운동 기구다. 200여개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검찰, 경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단체, 종교계, 언론계, 종교계 등이 ‘교통 지옥’으로 전락한 광주의 명예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의 각계 각층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이라는 ‘한 배’를 탄 것이다.

-운동본부의 활동 방향은.

▲‘시설과 제도개선’,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계도와 단속’ 등 3대 분야로 나눠 각계 단체가 현장활동에 나선다. 또 전조등 켜기와 방향지시등(깜박이) 사용 등 5대 행동강령을 운전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체계 개선과 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활동도 이뤄진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범시민 의식 개혁 운동과 함께 신호체계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탐색 및 조사, 대응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우범지역 등에 대한 CC-TV설치와 불법 주·정차 요인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또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활동은 물론, 교통문화 선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교통의인(交通義人)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위대한 광주시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내곤 했다. 4년째 ‘교통사고 1위’라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각계 단체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광주는 5·18민중항쟁 이후 민주·인권·평화의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유독 교통 인권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할 문제다. 이번 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광주가 ‘교통인권’에 있어서도 성지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장맛비 경제 가치 2,470억원

기상연구소 워크숍 자료…평균 강수량 364㎜

여름철 장맛비를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가치는 2천47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김백조 과장은 ‘강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강수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최근 30년(1979~2008년)동안 전국 60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과장은 최근 30년 동안 연평균 총 강수량 1천343㎜를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본 경제적 가치는 9천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마기간 평균 강수량 364㎜(연평균의 27.1%)는 2천47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기상센터 관계자는 “강수는 그동안 홍수, 폭설 등 기상 재해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강수는 가뭄 해소와 대기질 개선, 수자원 공급, 산불피해 방지 등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1일 ‘강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워크숍’을 열고, 강수 등 기상자원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특수지 학교’ 등급 조정

현행 237곳 중 해제 38·하향 29·신규 1곳 지정

내년부터 전남 도서벽지 등 이른바 특수지 학교의 등급이 대폭 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현행 237곳인 특수지 중 교통여건 개선, 학교 통폐합 등으로 38곳은 지정 해제, 29곳은 등급 하향 조정, 1곳은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5년만에 이뤄진 이번 등급 조정에 따라 ▲신안 압해초 ▲압해동초 ▲압해서초 ▲압해초쌍룡분교장 ▲압해중 ▲압해고 등 6곳은 압해대교 개통으로 ‘라’등급에서 해제됐으며, 고흥 금산남초, 보성 회천동초, 완도 노화동초 등 32개교는 폐교로 해제됐다.

연륙·연도교 개통, 도로개설 등 교통 여건 개선으로 등급이 하향된 곳은 녹동초 소록분교 등 29곳이다. 특히 고흥 남양초 우도분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높은 등급인 ‘가’에서 ‘다’로 두 단계 하향조정됐다.

또 목포 서산초충무분교는 신항대교 개설로 애초 도서 ‘나’에서 벽지 ‘라’로 조정됐다. 지난해 문을 연 광양 백운학생야영장은 벽지 ‘라’등급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 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수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로 도서벽지 등이며, 섬이 많은 전남지역은 전체 1천780여곳 가운데 13.3%인 237곳이 지정돼 있다.

특수지 근무 교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수당과 승진 때 가점, 의료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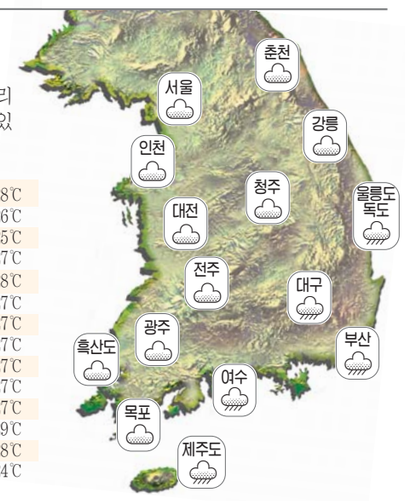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14시 30분 / 달짐 00시 34분

한발 물러선 장마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흐림	21/28℃
목 포	흐림	20/26℃
여 수	흐리고 비	21/25℃
완 도	흐리고 비	20/27℃
구 례	흐림	20/28℃
해 남	흐리고 비	20/27℃
장 흥	흐리고 비	20/27℃
고 흥	흐리고 비	20/27℃
순 천	흐리고 비	20/27℃
영 광	흐림	20/27℃
진 도	흐리고 비	19/27℃
전 주	흐림	21/29℃
남 원	흐림	19/28℃
흑산도	흐림	18/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먼바다	북~북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8:41 21:43	01:50 14:30
여수	03:26 17:02	09:57 22: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 씨						
최저/최고	20/29	20/29	20/31	21/32	21/32	23/27

무안에 ‘위험 기상 관측’ 이동식 첨단 레이더 가동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강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동식 이중 편파 기상 레이더를 1일부터 가동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기상 레이더는 무안군에 거점을 두고 강수 구름의 구조와 강수량 예측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차량에 장착돼 사용되는 기상 레이더는 수평·수직 전파(이중 편파)를 동시에 발사해 비나 눈, 우박과 같은 강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16억원을 주고 수입한 것이다.

한편, 국립기상연구소는 1일 기존의 무안기상대가 있던 해제면에 ‘기상레이더 연구소’를 개소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